

보츠와나! PULA!

나는 지난해 11월 육군대학에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다. 육군대학에는 16개 나라 외국군도 수학하고 있다. 나는 보츠와나군 마렉과(Marekwa) 소령의 후원인으로 선발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렉과 소령을 만나기 전까지 보츠와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나라였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1966년 영국에서 독립한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 남부 중앙 내륙에 자리 잡고 있다. 인접국으로는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다.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라 해군이 없으며, 국민 다수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마렉과 소령과 아내를 위해 서해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한국의 해산물을 소개 해주고 싶었지만, 마렉과 소령 부부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 햄버거를 먹었다. 바닷가에서 햄버거를 먹을 수밖에 없던 드문 상황이었지만, 그 또한 추



이성산 소령(진)
육군대학 소령지휘참모과정

억이 됐다. 마렉과 소령과 나는 생활 속 고충은 물론 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우는 팁을 공유하고, 전통음식 먹기 등 여러 가지를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특히 보츠와나라는 나라를 많이 알게 됐다. 보츠와나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반(反)인도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자, 북한과 단교를 선언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깊이 공감해 단교까지 한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보츠와나가 유일하다.

또 보츠와나와 잠비아 접경에 있는 카중굴라(Kazungula) 교량 건설을 한국에 맡겨 2020년 10월 성공적으로 준공됐다. 우리 기업은 뛰어난 네트워크 기술을 보츠와나에 전파했고, 광동

신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수주했다. 그 결과 보츠와나는 한국 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지역에서 원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우리 육군대학에 매년 장교들을 보내 군사교육을 받게 하는 등 군사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마렉과 소령에게 나는 가장 가까운 한국인이기에, 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군사·외교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를 일이다. 그렇기에 나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후원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보츠와나 군복에는 'PULA'라는 표어가 새겨져 있다. 보츠와나어로 '비'라는 뜻이다. 그들에게 비는 신이 내린 축복이자 행운을 뜻한다. 국가가 번영하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아프리카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문구다. 오늘도 나는 대한민국과 보츠와나의 관계가 신의 축복이자 행운이 되기를 바라며 마렉과 소령과 인사를 나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PULA! PULA! PULA!”

독서코칭을 통해 깨달은 군인정신



전현민 상사
육군1포병여단 칠봉부대

영화 평론가 이동진은 한 방송에서 “영화는 술처럼 뜨거운 성질이고, 책은 물처럼 차가운 성질이다. 우리의 이성은 기본적으로 차가우며, 교양에 관해서는 영화가 책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평소 책을 읽는 것만큼 즐거운 취미활동은 없다고 늘 생각해왔다. 이런 취미를 장병들과 나누기 위해 부대 독서동아리 모임을 하던 중 여단장님으로부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추진하는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인 ‘독(讀)한 장병 독서 코칭’을 소개받았다. 우리는 이 사업에 지원했고, 사업 부대로 선정돼 지난 6월 30일부터 독서 코칭을 받고 있다.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도서관협회가 협업해 각 부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업은 독서 인프라 구축과 각종 독서 프로그램으로 장병 소통문화 확산은 물론 병영을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 선정 이후 보다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 강사부대를 사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 이후에도 강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면서 코칭이 시작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의 첫 독서 코칭 도서는 김훈 작가의 『하얼빈』이었다. 이 책을 선정한 것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안중근 장군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기 위함이었다. 독서 코칭 강사는 책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안중근 장군이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고 지칭하며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명언을 남긴 부분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도 안중근 장군의 숭고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위국헌신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특히 독서 코칭에 참여한 류재호 상병의 서평에는 이러한 제목을 붙였다. ‘하얼빈, 영웅의 앞모습, 그러나 너무 서민적인’. 이렇게 훌륭한 문학적인 서평을 남겨준 강사에게 모두 감동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독서에 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문구는 ‘약육강식 풍진시대(弱肉強食 風塵時代)’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장군이 항소를 포기한 뒤 작성한 글이다. 당시 현실에 대한 안중근 장군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1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전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나아가 육군의 일원으로서 안중근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 튼튼한 국방과 굳건한 안보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더 확고히 했다. 이렇게 유익함을 주는 독서 코칭은 앞으로 4회가 남아 있다. 참여하게 될 장병들에게 독서의 긍정적인 면모가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UFS/TIGER 훈련으로 숨겨진 전투 본능을 깨우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은 느낌이였다. 어느 때보다 무전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병력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중대원들은 어느 때보다 강한 전투의지로 기도비닉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움직였고, 전투할 때는 파도처럼 몰아치며 순식간에 건물을 확보했다. 세차게 내린 비는 ‘병력의 움직임을 둔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과 달리 한여름 더위를 식혀 줌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 줬다.

이번 ‘20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타이거(TIGER)’ 기간 대대는 미군 1개 여단과 함께 한미 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했다. 언어, 상호 장비 호환, 기상 등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대대는 자체적으로 근접전투를 위한 별도 훈련장을 만들어 탐·소대 단위 훈련을 지속했다. 복도에선 도시지역 전투 영상을 계속 재생하며 훈련 준비에 매진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병력



김민식
육군9보병사단 붉은박쥐대대 대위

의 움직임은 신속해졌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싸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일과 이후에도 팀별로 모여 전투에 대한 위계임을 했다. 도시지역 훈련장에 전개한 뒤에도 지형 정찰, 탐·소대별 위계임, 전투기술 숙달을 지속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임무 완수에 대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중대원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차올랐다.

중대는 미군 소대를 배속받아 함께 작전하게 됐다. 우리 임무는 훈련장에 설정된 중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군과 함께 ‘락드릴(Rock Drill)’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건물 진입 방향, 기동 순서, 피아식별 및 신호규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임무 완수의

지, 전투 열정과 노력이 중대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있구나. 하지만 우리도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됐다. 우리는 예행연습 때 숙달했던 대로 우발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결심, 대응과정을 거치며 차례로 건물을 확보해 나갔다. 아무리 좋은 작전계획이 있어도 전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아무리 전투력이 뛰어나도 계획이 엉망이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이번 훈련은 조직원 모두가 하고자 하는 바가 같으면 승리한다는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을 몸소 깨닫게 해 줬다.

훈련에서 느낀 성취감과 아쉬움은 우리를 더 성장시켰으며, 짧지만 치열했던 전투는 전우애를 더 끈끈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이번 훈련 경험을 추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전투와 임무 수행에 대한 절박함, 언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부대 육성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래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7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문의)로 제출
기타: ‘병영의 창’에 게재될 분에게는 매월 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전화 947-3718, 일반전화 02-2079-3718